

1# 숲속 산길 / 밤

메리엇이 딸아이를 안고 험한 산길을 뛰어간다.

메리엇: 하아...! 하아!

그의 격한 숨소리는 남자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였다. 몇몇의 병사들이 그의 뒤를 쫓지만 나무가 많은 지형 탓에 쉬이 접근 하기는 어려워 보였다. 그들은 지원을 바라는 듯 큰 목소리로 외쳤다.

병사1: 거기 서라!

병사2: 잡아라! 간악한 성자가 저기있다!

쿵쿵거리는 심장박동 소리가 메리엇의 귓가를 마구 때렸다.

메리엇: !

팍!하고 뒤에서 쏘아진 화살이 메리엇의 뺨을 스쳐 붉은 생채기를 만들었다. 그에 품에 안긴 아이가 커다란 백금색 눈동자를 꿈뻑이자 메리엇은 아이를 감싼 보드라운 모포를 안심시키듯이 토닥였다.

메리엇: 괜찮... 후..., 괜찮단다 마리아.

메리엇: 걱정하지 말렴.

메리엇은 수풀 사이를 가로질렀다. 의복이 찢어지고, 상처가 늘어나도 개의치 않았다. 그는 그저 딸을 살리기 위해 달릴 뿐이었다.

2# 절벽 / 밤

메리엇: !

메리엇의 발이 멈춘 곳은 깊은 벼랑의 끝자락이었다. 저벅저벅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메리엇이 뒤를 돌아보자 숲에서 나온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. 메리엇은 뒤쪽에 벼랑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쳤다. 탁 타닥 탁... 발 뒤꿈치에 치인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다. 저 멀리 앞에서 무리의 대표로 나온 병사가 외치는 소리가 메리엇의 귀에 들어박혔다.

병사3: 그대는 이미 포위됐다! 순순히 항복하고 이쪽으로 오도록! 그리하면 너와 딸아이의 목숨은 살려주도록 하지!

메리엇: (살려? 웃기는 소리.)

허, 메리엇은 코웃음을 쳤다.

메리엇: (피가 섞인 혈육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도 모자라, 후계가 생길까 여자 하나 품에 들이지 않는 그 미친 황제가 한번 적으로 인식한 이들을 살려준다고?)

메리엇:(믿을 걸 믿어야지.)

메리엇은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.

메리엇: ....

[여기서 뛰어내리면 난 죽겠지만 아이는 살 가능성이 높다.]

[...하지만 그 이후엔? 마리에는 아직 갓난아이라 스스로 땅을 딛고 설 힘도, 도움을 청할 능력도 없다. 그 상태로 살아날 확률은 극히 적겠지.]

메리엇: (하늘이 돕지 않는 이상은...)

메리엇이 입술을 짓씹던 순간. 화살이 그의 어깨를 관통하고 메리엇의 몸뚱어리가 기울었다.

메리엇: (추락한다.)

메리엇은 몸을 최대한 웅크려 아이가 다치지않도록 감싸 안았다. 우득!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메리엇은 의식을 잃었다.

3# 절벽아래 / 밤

메리엇은 힘겹게 눈을 떴다. 멍한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딸아이였다. 그는 제 품에 안긴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미소를 흘렸다. 피웅덩이가 그들 주위를 메우고 있었다. 그는 두 손을 맞잡는 대신 바닥의 흙을 그러쥐고서 기도했다.

[신이시여 부탁드립니다. 부디 제 딸을...]

메리엇: 마리에를... 지켜주세요.....

그렇게 성자, 메리엇 글란체도르는 숨을 거두었다.

그리고,

[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.]

모로스의 시야 끝에는 메리엇의 시신이 존재했다.

[메리엇이 죽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과 무력감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.]

[신인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은 책 속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었다.]

[원하든 원하지 않든 멋대로 진행되는 스토리,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는 주인공, 하나 둘 죽어나가는 인물들.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일방적으로 정을 붙인 이들이 무사하길 바라며 페이지를 넘기는 것 뿐이었다. 허나.]

모로스: 이게 정말로 책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면 이 정도로 가슴 아프진 않았겠지.

모로스는 금빛 눈동자를 차분히 내리깔았다.

모로스: (생각하자.)

[만약... 이 이야기에 약간의 변수를 더할 수 있다면...]

[메리엇의 마지막 기도를 이루어줄 수 있다면...]

모로스: 그렇다면...

모로스: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...

모로스가 허공에 손을 휘두르자 샤아아 하고 신성이 메리엇의 육체에 모여 들꽃같이 피어나기 시작했다. 그리고, 그 육체에 신의 영혼이

심어졌다. 부러진 뼈가 붙고, 망가진 신체와 장기가 복구된다.  
두근거리는 심장박동 소리가 다시금 들리기 시작하자….

모로스: ….

메리엇의 탈을 쓴 신이 눈을 떴다.  
남자가 손을 움직여보자 커다란 보름달이 보이는 하늘에 움직이는 손이  
시야에 그대로 비쳤다.

모로스: (메리엇의 손….)

모로스는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다.

[신인 내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제대로 간섭할 수 있을 때… 그때가  
바로 신자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이 특수한 능력을 사용할 때였다.]

모로스: 비록… 메리엇을 살릴 수는 없었지만….

[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으니, 지금은 이걸로 됐다.]

모로스는 제 옆에 놓인 아이를 바라보았다. 그 순박한 눈동자와 눈이  
마주치자 남자는 쓰게 웃음지었다. 모로스가 아이를 품에 안고  
도닥이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.

모로스: 일단… 여기를 벗어나자.

모로스: (언제 다시 병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.)

백금색 눈동자의 아이를 바라보며 모로스가 다정히 입을 뗐다.

모로스: ...이제부터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가야. 그 아이의 염원이 다 하기 전까지,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 줄게.

그렇게 둘은 숲길을 걸어갔다. 만월이 아름다운 밤이었다.

4# 모로스의 집(실내) / 아침

모로스: (그 뒤로 벌써 11년이나 지났구나.)

모로스는 물잔을 입가에 가져다대며 상념에 잠겼다.

[그 날 이후, 황제에게 쫓기고 있는 이상 제국에 체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한 나는 마리에를 데리고 국경을 넘었다. 물론 그 과정은 길었고, 쉽지만은 않았으나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타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.]

[그렇게 우리가 정착하게 된 곳은 메르힌 마법공화국에 있는 어느 마을이었다. 국가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으며 이름조차 없는 자그마한 마을. 그럼에도 마을의 주민끼리 소박하게 잘 살고있어 커뮤니케이션이 끊이지 않는 좋은 마을이었다.]

모로스: (이대로라면 별 탈 없이 그 아이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겠지...)

모로스는 제 손짓에 잔에 담긴 물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추억에 젖은 눈동자를 꿈뻑였다. 그리곤 설핏 중얼거렸다.

모로스: ...감회가 새롭네.

중년 여성: 네?

앞에 앉은 이웃이 모로스를 보며 의문을 표했다. 그 말뚱거리는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던 모로스는 가라앉은 눈동자를 거두고 활짝 웃었다.

모로스: 아뇨, 혼잣말입니다. 계속 말씀해주세요.

아줌마: 네, 그래서 말입니다... 우리 아들내미가...

모로스: 네네.

모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.

아줌마: 그래서... 하아... 저는 당신이 참 부러워요...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?

모로스: (음, 육아 방법이라...)

모로스가 침음을 흘리며 고개를 모로 끄었다.

모로스: ...저는 딱히 한 게 없어요. 그냥 아이가 혼자 잘 큰 거죠. 기특한 애예요.

아줌마: 어머, 겸손도하셔라!

아줌마가 호호 웃었다. 모로스는 그런 그녀를 앞에 두고 생각이 많아졌다.

모로스: (다음엔 무슨 수다 공격을 또 해올까... 벌써 두시간 반이나 지났는데.)

모로스: (뭐든 좋으니 제발 빨리 돌아갔으면...)

그때였다. 끼이익, 누군가 낡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.  
열은 갈색 머리칼에 백금색 눈동자를 가진 귀여운 소녀.

마리에: 아빠!

도도도 모로스에게 달려온 마리에가 그의 품에 폭하고 안겼다.  
구세주의 등장이었다. 그에 모로스는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기  
시작했다.

모로스: 마리에! 아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. 아쉽지만 저는  
딸아이와 장보러 나갈 시간이라...

아줌마: 어머, 그러시군요. 시간 쓰게해서 미안해요.

아줌마가 그리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로스도 그녀를 따라  
일어났다.

모로스: 아뇨아뇨 신경쓰지 마세요.

모로스: (제발, 신경 써 주세요!)

모로스의 입밖으로 내는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엇갈렸다.

아줌마: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잘 있으렴 마리에.

마리에: 네! 안녕히 가세요!

모로스: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

쿵, 문이 닫히고 그렇게 실내에는 부녀 둘만이 남았다.



모로스: (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줌마의 고민은 들어주지 말자,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피해야지.)

그렇게 다짐한 모로스는 무릎을 굽혀 마리에와 키를 맞추고선 미소지었다.

모로스: 우리 딸이 무슨일로 아빠를 찾았을까?

마리에: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왔지!

마리에가 깜찍하게 윙크하며 웃었다. 으아악 귀엽다!

모로스: 으이구! 누구 딸이길래 이렇게 이쁠까?

마리에: 까아!

모로스가 아이의 머리를 마구 쓰다듬자 아이가 헤실헤실 웃음을 지었다.

5# 마을 거리 / 아침

왁자지껄한 마을 거리에는 소규모이나 다양한 종류의 노점상들이 늘어져 있었다. 그 중 한 노점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부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.

벤: 여! 이게 누구야! 우리 마을의 인기인 빈센트랑 마리에 아냐?!

모로스: 아, 벤씨.

*\*모로스는 ‘빈센트’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.*

벤은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었다. 그는 부녀를 보며 새하얀 건치를 드러냈다.

벤: 오늘은 무슨 일이야? 과일 사러 왔어?

모로스: 네, 오늘은 사과를 사러 왔는데, 혹시 있나요?

벤: 그럼그럼, 당연히 있지!

벤은 사과를 종이봉투에 담아 모로스에게 내밀었다. 모로스가 그 봉투를 받자 그의 얼굴이 점차 진지해지기 시작했다.

벤: 혹시, 그 소문은 들었나?

모로스: 네? 무슨 소문이요?

벤: 우리 마을 뒷산에서 중급 마물이 나타났다고 뭐냐.

모로스: ...중급마물이요?

‘중급마물’ 그 말을 듣자 모로스의 표정도 벤을 따라 어두워졌다.

